광주·전남 기름값 9주 연속 하락

4월 2주차 휘발유 ℓ당 1643원
생활물가 폭등 속 고물가 부담 완화
국제유가 당분간 하락세 유지할 듯

농·축산물 등 먹거리와 각종 서비스 물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휘발유와 경유 등 국내 유가가 9주 연속 하락해 광주·전남지역민의 고물가 부담을 덜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7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반영한 생활물가지수는 119.35로 전년 동월보다 2.1% 올랐다. 품목별로 무(109.4%), 배추(63.3%) 등 먹거리와 보험서비스료(15.1%), 가정학습지(11.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 오른 것이 없을 정도다.

같은 기간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2% 오른 117.41을 기록했고, 생활물가지수는 역시 2.5%나 뛰었다.

광주·전남은 식료품, 주류, 의류, 주택 수도, 보건, 교육, 서비스 등 모든 부문의 물가가 1년 전보다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물가 기조가 꺾이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비가 최근 9주 연속 하락하면서, 지역민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과 '페트로넷'을 분석한 결과, 광주 소재 주유소들의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액은 4월 2주차 기준 ℓ당 1643.26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1주(1718.93원)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자동차용 경유 역시 ℓ당 1586.75원에서 1514.84원으로 4.5% 하락했다.

전남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액 역시 2월 2주차(1730.61원)부터 4월 2주차(1676.74원)까지 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유류비 하락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하락 변동 추세는 2주 정도 지나고 국내 유가의 상승·하락에 반영되는데, 국제유가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종별로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모두 올해 들어 1월 3주차 이후 3달 가까이 하락했다. 올해 초 배럴 당 80원을 넘어섰던 평균 가격은 이달 들어 배럴 당 60원대로 내려왔다.

두바이유는 4월 2주차 기준 배럴 당 64.40원으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던 1월 3주차(83.21원) 대비 22.6%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브렌트유는 배럴 당 81.01원에서 64.12원으로 20.8% 하락했다. WTI도 배럴 당 78.58원에서 60.84원으로 22.6% 내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여행용 캐리어·가방 최대 30% 할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봄을 맞아 4층 쿠론 매장에서 여행용 캐리어와 가방 등 '트래블 라인'을 선보인다. 매장에서는 가벼운 소재와 컬러풀한 디자인, 무소음 바퀴로 패션과 편의성을 모두 잡은 캐리어와 여행·일상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가방 등 여행 필수 아이템을 만날 수 있다. 쿠론 매장은 신규 라인 출시 기념으로 이달 말까지 트래블 라인 1개 구매 시 10%, 2개 구매 시 20%, 3개 구매 시 30%를 할인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 최신형 '엑스타' 단독 생산

제동력·고속 주행 안정성 강화

금호타이어가 광주·곡성공장에서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인 신형 '엑스타 스포츠 시리즈'(사진)를 '100% 한국산'으로 단독 생산에 나선다.

금호타이어는 "스포츠 타이어 엑스타(ECSTA)의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 '엑스타 스포츠 S (ECSTA SPORT S)', '엑스타 스포츠(ECSTA SPORT)', '엑스타 스포츠 A/S(ECSTA SPORT A/S)'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엑스타 스포츠 S'와 '엑스타 스포츠'는 기존 초고성능 타이어 '엑스타 PS91, PS71'의 후속 모델로 고성능 고출력 차량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초고성능 스포츠 타이어다. 엑스타 라인업을 완성하는 '엑스타 스포츠 A/S'는 사계절 드라이빙 퍼포먼스 타이어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한국·중국·베트남·미국 등에 공장을 보유한 금호타이어가 광주·곡성 공장에서 '100% 한국산'으로 생산하기로 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엑스타 브랜드 신제품은 견고한 블록 강성 설계, 벨트(Belt·트레드와 카카스 사이 보강재)와 비드(Bead·사이드월과 휠이 만나는 부분) 내구력을 강화해 정교한 핸들링을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타이어 내부에 폴리우레탄 재질의 폼을 부착하는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소음 저감 9신기술인 'K-Silent Ring'(흡음 기술)까지 적용해 타이어의 공명음과 지면 접촉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고성능 브랜드 '엑스타' 신제품을 통해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국내외 시장을 본격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녹지 없고 엘리베이터 좁아도 가능
아파트 재건축 진단 문턱 낮아진다

'주거환경' 평가비중 30→40%로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재건축진단(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10년 만에 다시 40%로 높아진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주차난이 심하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거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 평가하는 세부 항목에는 조경 등 녹지환경, 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4일부터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6월부터는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평가 항목도 바꾼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다. 점수를 매긴 뒤 가중치를 둬 합산한다.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구조안전성 30%, 설비노후도 30%를 적용한다. 비용분석 가중치는 제외한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40%로 높아지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 가중치를 지금과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다.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에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으로 통합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특별법령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신세계 '줄 서는 맛집' 구오만두 개장 광주신세계가 본관 지하 1층 식품관에 '줄 서는 맛집' 구오만두 정식 매장을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팝업 스토어로 임시 개장했던 구오만두의 인기에 정식으로 매장을 열고 고객을 맞이한다. 구오만두는 9시간 동안 숙성한 반죽피를 5가지 정성이 들어간 조리과정으로 만들었다는 뜻으로 방송 '생활의 달인' 만두편에 소개돼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업들 "지자체 늘어난 규제·행정 지연 부담"

지난 10년간 규제 부담 급증

국내 기업들이 최근 10년간 노동 분야와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 지연 관행 등에서 규제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유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 수준을 수치화하는 기업부담지수(BBI)를 조사하고 2015년 결과와 비교했다.

조사는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해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상회해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 부담이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크게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노동 규제(112.0),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은 노동 규제 부담지수가 높은 것은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 등 낮은 고용유연성과 국회를 중심으로 늘어난 규제 법령 등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일선 행정에 대한 부담도 10년 전 77에서 현재 111로 증가했다. 지자체의 일선 규제가 늘고, 행정 지연 등의 관행이 기업의 체감 부담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조세 부담은 120.9에서 100.7로, 준조세 부담은 122.5에서 112.5로 줄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경총, 광주 산업인력공단과 상생 협약

이용섭 전 시장 특강도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18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리는 금요 조찬 포럼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광주본부)와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과 광주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물적·인적 인프라 지원, 사업 홍보·기관 간 네트워킹 확대 등이다.

광주경총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초청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총은 788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숙련 기술인을 양성하는 기관인 광주본부와의 협약으로, 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상생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연구원 "관세 영향권 우리나라 대미 수출 GDP 9.4%"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대미 수출 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출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미 직접 수출은 2021년 959억달러에서 2024년 1278억달러로 연평균 10.0% 증가했다.

특히 5대 수출 품목(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부품, 컴퓨터, 석유제품) 수출액이 같은 기간 433억달러에서 645억달러로 늘면서 대미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한국의 대미 우회 수출 규모도 추정한 결과 2020년 기준 약 44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0.41 (+22.98)
↑	코스닥	711.75 (+12.64)
↑	금리 (국고채 3년)	2.385 (+0.034)
↓	환율 (USD)	1418.55 (-8.15)

〈오후 5시 10분 기준〉